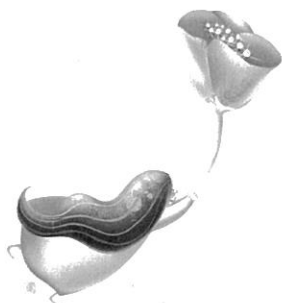


결핵 상담실

Q 다제내성 치료로 입원 중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균이 많이 죽었고 크게 악화되지 않아 괜찮다시는데, 요즘 체중 변동이 심해 걱정입니다. 집에서 요양하면서 치료하는 것만으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스트렙토마이신을 냉장보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폐결핵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면, 균음전이 되고 병의 경과가 점차로 좋아지면서 체중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환자 별로 또는 병의 경과에 따라서는 체중이 잘 안 늘거나 약간 늘어나고 더 이상 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결핵이 잘 치유되고 있다면 체중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스트렙토마이신은 반드시 냉장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Q 2011년 10월경 결핵판정을 받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 이번에 정밀진단을 다시 받아보니 활동성 균이 다시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학교생활과 치료를 병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의사는 활동성으로 아이가 휴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얼마나 치료를 해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핵치료를 받다가 다제내성이 생긴 경우 2차 약들로 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별 문제가 없다면 학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지만, 재치료 중에 계속 균이 나오거나 약 부작용이 심해 학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학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폐결핵 재치료의 경우 약물치료를 하는데(치료 초기에는 주사제를 병용하기도 함) 성공적으로 치료가 잘 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합니다.

Q 대학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7개월간 약 복용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 총 2개월을 먹어야 한다던 에탐부톨을 중간에 뺐습니다. 완치 판정 후 피 섞인 가래가 결핵 발병 당시처럼 나와 병원에 가니 다 낫지 않은 것 같다고 2개월 약을 더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료 후 25일만에 약을 다시 먹고 있습니다. 객담검사(배양검사만) 다시 하고, 엑스레이는 처음에 찍자고 하시다가 그냥 2개월 후에 다시 찍자고 하셨어요. 재발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처음과 다른 교수님께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중간에 에탐부톨을 뺐으니 약을 9개월 먹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완치 판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건지요?

A 폐결핵 초기치료의 경우 통상 4제 요법으로 치료하면 6개월 또는 9개월 정도 치료를 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치료를 종결합니다. 에탐부톨은 과거에는 치료기간 내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약제에 내성이 없으면 도중에 제외하기도 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부작용으로 에탐부톨을 제외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처방구성이나 치료연장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임상적인 경과에 따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발여부는 흉부 X-선 소견 및 객담 검사, 증상 등 임상적 소견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문의 내용만으로 보아서 재발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종전에 치료가 잘 되고 있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내성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1개월 전에 결핵 판정 후 약을 꾸준히 복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면 산정특례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결핵성 늑막염은 엑스레이 상으로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CT나 다른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기침이나 가래는 없는데 유독 호흡곤란증세가 나가지질 않습니다. 물약을 2~3개월 복용을 해도 호흡곤란증세가 나가지질 않으면 종합병원으로 옮겨 다른 검사를 해봐야 하는지요?

A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나 약제들은 산정특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병원 원무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성 흉(늑)막염은 흉부 X-선 검사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흉수 균검사, 생화학 검사, 흉막 조직검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의외로 호흡곤란이 심하다면 다른 원인이나 질환이 있지 않는지 더 검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30개월 정도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어린이 집에 실습을 온 사람 한 명이 결핵 판정을 받아서 원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5~6명 정도 양성반응이 나왔고, 발병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약을 먹었다고 하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전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발병한 것이 아닌, 단순 보균(잠복결핵)이라면 전염성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원아들이 폐결핵이 아닌 단순한 잠복결핵 상태라면 실제로 전염 가능성은 없으므로 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령 폐결핵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핵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고 있고 치료가 잘 되고 있으면 전염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